

<인문사회계열>

2017학년도 논술전형 모의고사 출제배경 및 해설



SEOULTECH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문제 1]

1. 출제 배경 및 제시문 해설

맥락 속에서 글의 주제를 찾고 정리하는 것은 국어 능력의 기본이기에 이를 검증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제시문은 고등학생에게 낯설지 않을 소설 지문이다. 지식 측정이 아니라 독서한 후 분석하고 종합하여 과정을 정리하면 답을 쓸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가)는 황석영의 소설 「삼포 가는 길」이다. 발문에서 제목을 명시했다. (나)는 현기영의 소설 『지상에 순가락 하나』이다. 역시 발문에서 제목을 명시했다. (가)는 산업화로 고향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했다고 알려져 있다. (나)는 제주 4·3 사건을 겪은 주인공의 성장담을 기록한 소설로 알려져 있다. [문제 1]에서는 ‘고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안점으로 삼아 읽고 분석하고 종합하기를 요구했다. (가)에서는 고향을 상실했다는 절망감으로 쓸쓸해하는 ‘정 씨’의 인식이 평면적으로 드러난다. (나)는 과거 고향에서 겪었던 사건을 트라우마로 가진 화자가 스스로 역사의 의미를 곱씹으며 고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담고 있다.

2. 예시 답안

(가)와 (나)는 모두 고향을 이야기하고 있다. 과거의 고향과 현재의 고향이 다르다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가)의 정 씨와 (나)의 화자가 현재의 고향에 대해 인식하는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가)의 정 씨에게 고향은 돌아가고 싶어도 파괴된 곳이기에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 그에 반해 (나)의 화자에게 고향은 피하고 싶고 돌아가기 두려운 곳이었으나 자주 찾아가게 되는 곳으로 변화했다.

(가)에서 정 씨의 고향은 사람들이 고기잡이를 하고 감자를 매는 전근대적인 토속적 공간이다. 그러나 기차에서 우연히 옆에 앉게 된 노인의 말을 듣고 그는 절망에 빠진다. 간척사업으로 바다가 육지가 되고 관광호텔이 들어서는 등 공사판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나)의 화자에게 고향은 정치적 사건으로 파괴되어 폐허가 된 공간이다. 고향은 죽음의 어두운 이미지가 깃든 곳이며 우울증이 시작된 곳이다. 그런데 화자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심경이 변하여 고향을 자주 찾게 되었다고 말한다. 콘크리트로 둘러싸이고 옛것이 사라져서 서울의 변두리와 유사하게 된 고향의 물리적 변화에 화자는 반감을 표하지만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곳이라는 인식 하에 긍정적 공간으로 고향을 받아들이려 한다.

[문제 2]

1. 출제 배경 및 제시문 해설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회 교과목의 주요 항목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권리 가운데 하나이다. 무제한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국익과 공동체의 이익에 따른 언론자유 제한을 두고 서로 대립적인 입장도 존재한다. 이 문제는 잘못된 보도 사례를 보고 언론이 지녀야 할 공정성, 진실성, 객관성이란 언론 윤리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언론의 자유와 언론 윤리에 대한 논리적 사고를 구성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시문 (가)는 언론의 자유 가운데 국익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경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들고 있다.

제시문 (나)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중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글이다. 다양한 표현이 제한 없이 인정되어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자유주의의 기본 가치가 드러나는 글이다.

제시문 (다)는 언론의 진실성, 공정성, 객관성을 강조하며 참된 언론의 위상을 주장하는 글이다.

제시문 (라)는 워싱턴포스트 지의 윤리강령이다. 국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특정한 정보가 은폐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보기>의 글은 1986년 당시 금강산 댐 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2]는 <보기>에서 드러나는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적절한 개념과 주장을 가려내어 ‘언론의 윤리’에 대한 논리적 글 구성 능력을 보려 하였다.

2. 예시 답안

제시문 (가)를 참조로 하면, 언론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고 보도할 때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안보에 관한 정보를 출판하거나 방송하는 데 공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검열을 받아들이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 제시문 (나)에 따르면 모든 언론이 정부가 바라는 의견만을 발표하고 그에 반대되는 의견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을 억압하면 결국 공동체는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언론은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의견뿐만 아니라 그에 반대하는 의견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 (다)에 따르면 언론은 정부 정책을 편파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중시하되 공정하고 진실되게 보도해야 한다. 허위나 왜곡된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언론의 생명은 공정성, 진실성, 객관성이다. 제시문 (라)의 주장에 의하면 관료나 정권의 이해가 국익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올바른 정보를 최대한 알릴 때 오히려 국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달성된다. 언론은 정보 전달의 정확성을 기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언론 윤리의 핵심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보도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문제 3]

1. 출제 배경 및 제시문 해설

[문제 3]은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기업의 ‘합리적’ 이윤 추구 행위의 적절한 범위와 이를 제어하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을 묻는 문제이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군) 중 <경제>, <생활과 윤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고등학교 경제>에서 다루고 있는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시장의 실패와 정부 개입,’ ‘기업의 경제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에서 다루고 있는 ‘전문직·공직자 윤리’에 대해 알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합리적 경제 주체로서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요한 원칙이다. 하지만 기업의 일탈 행위(예를 들어 제시문 [다]의 ‘기만이나 부정 이득’)는 이와 같은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개입을 통해 기업을 제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전면적으로 대두된 오늘날 과학기술자들이 기업의 일탈 행위를 제어하는 역할을 요청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 전문가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2. 예시 답안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기업은 합리적 경제 주체로서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삼는다. 각 기업이 이기적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더라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때문에 공익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기업 행위에 대한 간섭을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기업의 자유는 무제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기업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기만이나 부당 이득’을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누릴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해당 기업의 임원은 제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판매를 강행했다. 더군다나 안전하다는 광고까지 한 것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나아가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과학기술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높은 윤리 의식이 절실하다. 기업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전문가들이었지만 경영자의 판단을 제어하는 데 실패했다. 이들은 기업의 일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 공익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전문가들이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을 견지했더라면 방지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